

평창군, '평화 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11.22 09:39 수정 : 2021.11.22 09:39

【파이낸셜뉴스 평창=서정욱 기자】 평창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왕기 군수와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테마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22일 평창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왕기 군수와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테마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사업으로 3년간 공한지로 남아있던 올림픽플라자 부지에 기념공원과 콘텐츠 융합 체험시설이 포함된 평창평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 7월 설계공모를 실시해 10월 심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크레파스, 고을 건축사사무소, (주)조경설계비온드가 공동 참여한 설계안이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달 10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내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평화 테마파크는 평창올림픽 시상대 모양을 모티브로 한 평창평화센터와 기념광장등을 조성해 체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통문화관과 휴전의벽 등 올

림픽 당시 설치된 기존 시설들도 활용하여 올림픽 당시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문화·역사·올림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조성을 통해 평창 대표 관광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올림픽정신과 평화유산을 지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